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2)(11/4/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2 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7-8 절

욥 7:1 -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고후 4:16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3:5 -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7.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십자가이자 순교였는데, 당신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들을 감당해 내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는 것이고,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전체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고(욥 7:1), 십자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진보를 이룬 사람일수록, 자주 더 무거운 십자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본향을 떠나 이 땅에 유배 와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8.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자신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위로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환난에 내맡기면, 환난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육신이 환난으로 인해서 쇠약해짐에 따라, 영혼은 내면에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해 집니다(고후 4:16). 또한, 종종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해져서, 고통과 환난 없이 지내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고후 11:23-30), 도리어 환난을 적극적으로 원하게 되어, 더욱 담대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더 많이 질 수 있다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고후 3:5). 육신은 본성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하기를 몹시 싫어하여 도망치려고 하지만, 영혼의 뜨거운 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사랑하여 기꺼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면서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만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총과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시 117:1-2 -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응답하신다. 시 118:5 -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전 10:13).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처음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야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셨다. 막 8:31 -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 막 8:34-35 -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찾아 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다(요 21:15-17). 그리고 베드로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도 예언하셨다. 요 21:18-19 -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베드로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무게로 다가갔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에 까지 이르는 헌신을 부탁하셨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처형 당할 때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채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다. 주님과 그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과 사역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리고 영적 수준이 높아 질수록 그들이 저야할 십자가도 더 무거워졌고, 그들이 당한 시험도 감당하기 더욱 어려운 것들이었다. 바울은 고후 11:23-27 에서 자신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진술했다. 고후 11:23-27 -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결코 그 시험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환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십자가에 이미 못박혔고 매일 같이 자신을 못박는 삶을 살았다(갈 2:20).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한 바울은 고난을 담담하게 수용했음이 틀림없다. 아울러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롬 8:37-39),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었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 빌 4:12-13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의 길 위를 걷는 우리 앞에는 온갖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강하고 거센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아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세찬 바람과 넘기 힘든 난관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우리가 올라야 할 산에 오르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잘 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저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연단 받고 점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역량을 갖추고 성숙되어졌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나중에 더 큰 십자가도 지게 하신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해 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다. 주님은 내가 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게 하신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2. 이 땅에서 세우신 선지동산(신학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모 잡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질병, 경제적인 문제, 체류, 학업, 등 복잡한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는 교우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